

북한이탈주민 창업에 관한 뉴스 데이터 토픽 모델링 분석: 2013~2021년까지 정부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문준환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연구교수

News data LDA on North Korean defector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government policies from 2013 to 2021

Jun-Hwan Mun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권의 기조에 따른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정권과 직전 정권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창업에 대한 뉴스 데이터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토픽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주요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전문화된 창업교육과 금융 및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창업, 뉴스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인터뷰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outbreak.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terest in starting a business is increasing. This study targeted the current and previous government, and discovered major topics through text mining of news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 starting a business to examine the start-up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keynote of the present regime. Additionally, key factors for successful start-ups were derived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done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omen and the youth, and to actively expand specializ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practical and continuou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tart-up, News Big Data, Text Mining, Topic Modeling, Interview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KKU Supreme Research Program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Jun Hwan Mun(mjhpioneer@skku.edu)

Received December 16, 2021

Revised January 19,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격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 대량의 자금이 풀려 부동산, 주식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부를 확대하는 계층이 있지만, 실직과 폐업 등으로 빛이 들어나는 계층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의 취약계층 중 하나의 계층으로 정보의 탐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1]. 비록 향후 2~3년 내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대한 부채와 양질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60.1%), 고용률(54.4%), 실업률(9.4%), 그리고 월평균임금(216.1만원) 등에서 일반 국민들보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경제활동 참가율 62.1% → 60.1%, 고용률 58.2% → 54.4%, 실업률 6.3% → 9.4%),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들어 창업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3].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27.4%), 의료지원(17.3%), 주택문제 관련 지원(13.1%)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의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 우리 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까지 총 33,752명이며, 이들 중 자영업자들은 16.4%를 차지하고 있다[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문화의 차이, 경쟁 사회의 부적응, 언어의 차이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장마당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창업을 쉽게 시도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시장분석, 서비스마인드 부재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4, 5],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 창업 연구는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인터뷰와 사례연구와 같은 질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창업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 제시에 머무르고 있어 창업 활성화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확대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자영업 문제, 특히 그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도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나라와 문화, 경제, 정치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바, 생활 밀착형 창업을 쉽게 시도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창업과 관련된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한 담론이 무엇인지를 정권의 차이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형성하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배경

2.1 북한이탈주민 창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자 비중은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1년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 1.2%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4.6%, 그리고 2020년에는 16.4%로 크게 증가했다[2]. 남한 거주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증가하며(3년 미만 10.1%, 10년 이상 44.2%),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도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현상을 통해 임금근로 종사 북한이탈주민들 중 일부가 자영업 형태로 전환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3].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기간 경험했던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남한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편이지만, 남한 사회에서의 인적네트워크 부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설립 및 운영자금 등 기초자산이 부족한 창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6].

2.2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제도

우리 정부의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지표는 다소 개선되는 추이이지만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에서 취업 지원제도는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3].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 및 기존 창업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영역에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반 금융기관과 연계한 창업자금지원(대출)과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창업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영컨설팅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 창업지원의 기조는 기창업자 경영개선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 협력을 통한 창업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창업 지원으로 생계형 창업과 청년창업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영역에서는 대학교, 금융기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 및 창업자금지원(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피피엘에서 OK셰프 프로그램을 7기까지 운영하며 창업자금지원과 눈높이형 창업교육 및 실습 중심으로 One-stop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교육부터 창업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교육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7].

2.3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창업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가 아닌 인터뷰와 같은 질적연구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5].

윤국(2013)은 창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험에서 창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여, 이들의 창업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적응단계를 이주, 자각, 조정, 적응, 정착의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창업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다[8]. 현인에 등(2014)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성공은 창업자 본인의 노력과 성품에 달려있고 금전적 지원보다는 창업 전 준비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 김승진, 전무경(2017)은 북한이탈주민 청년과 남한 청년의 협업 창업모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 이준호 등(2017)은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청년의 창업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4]. 김영지 등(2018)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를 벗어나야 하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 윤보성 등(2019)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성과를 자원기반관점에서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한 네트워크 신뢰를 보다 용이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pool을 구성하고 소통 및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의 정례화 및 우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11]. 김영지(2019)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성공 창업자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유형화하였다[5]. 마지막으로 이진석(2020)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 지원 정책과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3].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창업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가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제시에 머무르고 있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 창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 창업과 관련된 기사는 정부의 시기별(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수행 및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관련 주요요인을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관리대상이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안 이슈로 인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창업을 키워드로 국내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과거 10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고자 한다. 수집된 뉴스 기사를 전처리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단어인 명사구 위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도분석과 LDA분석을 실시하여 주요한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두 정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의 창업성공 관련 주요요인을 도출한다. 실제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정책이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3.2 데이터 수집 절차

분석 언론매체는 총 53개이며,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s of News

Journal Type	Press
National	Kyunghyang Shinmun, Kukmin Ilbo, Naeilnews, Dong-A Ilbo, Munhwa Ilbo, Seoulshinmun, Segye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Hankook Ilbo
Business	Maeil Business, Money Today, Sedaily, Asia Business Daily, Aju Business Daily, Financial News, Korea Economic Daily, Herald
Local	Gangwon People's Media, Kang Won Ilbo, KyeongGi Ilbo, Gyeongnamdomin Ilbo, Gyeongnam Shinmun, Gyeongsang Ilbo, Kyeongin Ilbo, Kwangju Daily, Kwangju Ilbo, Kookje Daily News, Daegu ilbo, Daejon Ilbo, Maeil Shinmun, Mudeung Ilbo, Busan ilbo, Yeongnam Ilbo, Ulsan Daily Shinmun, Chonnam Ilbo, Jeonbukdomin Ilbo, Jemin Ilbo, Joondo Ilbo, Joongbu Maeil, JoongBu Ilbo, Chungbuk Ilbo, Chungcheong Ilbo, Chungcheong Today, Halla Ilbo
Broadcasting	KBS, MBC, OBS, SBS, YTN
Digital	Digital Times, Electronic Times

* source: www.bigkinds.or.kr

분석대상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창업 의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기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를 ‘북한이탈주민 창업’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대상 뉴스 현황은 Table 2와 같이, 최초 수집한 473건의 뉴스 중 단순 공지, 인물 동정, 중복 보도 등 17건의 뉴스를 필터링하여 최종적으로 456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빅카인지를 통해 비정형 텍스트의 형태소 추출과 키워드 정제가 완료된 엑셀 파일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Table 2. Number of News Data

Sort	Park Geun Hye Government (2013.2-2017.3)	Moon Jae In Government (2017.5-2021.7)	Total
Original Data	241	232	473
Exception	14	3	17
Final Data	227	229	456

박근혜 정권의 기간별 데이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2015년 3월과 2016년 12월에 관련 논의가 다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기간별 데이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Fig 2과 같이 2018년 4월과 2019년 1월, 9월에 관련 논의가 다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결과

분석은 R program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의 첫 단계로, 데이터 전처리(형태소분석, 불용어 처리 등)를 수행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명사 어구를 제외하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명사 형태의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추출한 명사 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의 관련 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정하는 데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12], 블레이 등(2003)이 제안한 복잡도(perplexity)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기사 텍스트의 적정 토픽 수를 확인하였다[13, 14]. 그 결과, 복잡도에 의한 토픽 개수는 35개 이상임을 확인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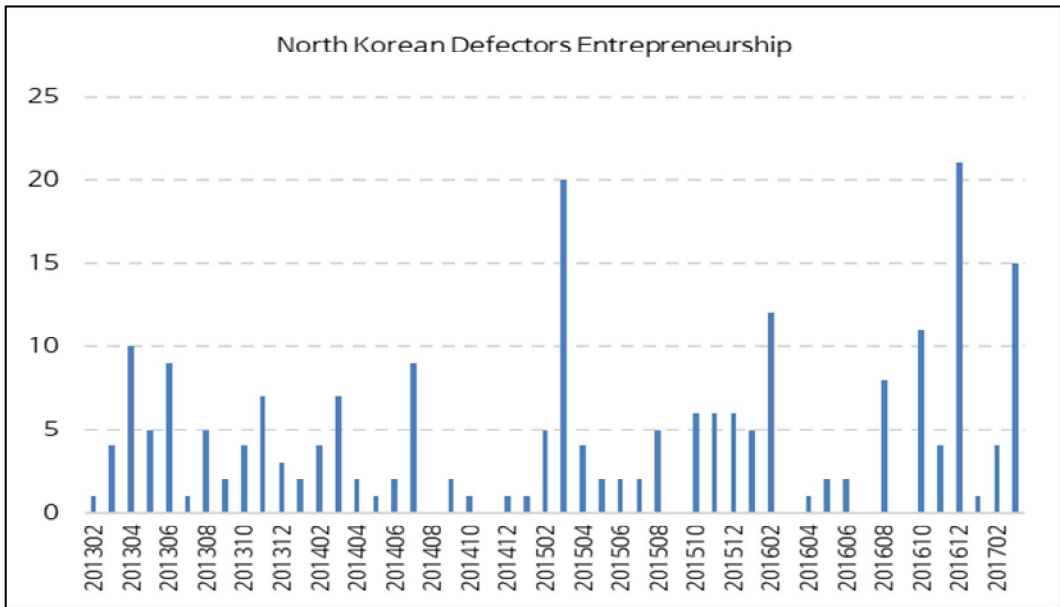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news data (2013.02-20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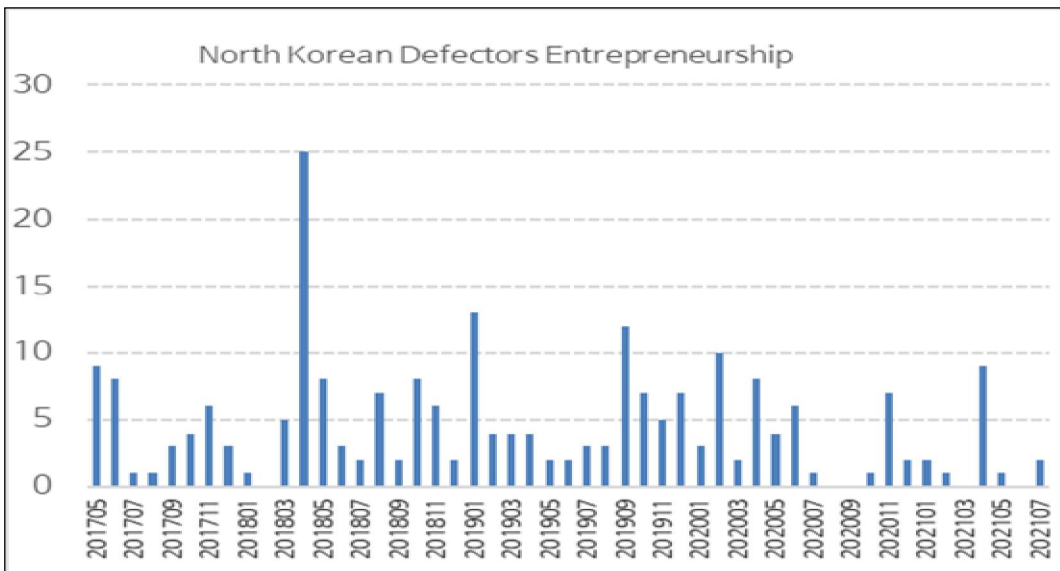


Fig. 2. Number of news data (2017.05-2021.07)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토픽의 개수를 2개에서 40개로 정한 후, 샘플링 반복횟수를 1,000회로 설정하여 토픽 개수별로 중복되는 키워드의 수를 비교하였다. 중복되는 키워드 수가 가장 적고 범주별로 해석이 용이하게 분류된 적절한 토픽의 개수는 6개로 나타났다. 좀 더 세밀한 주제의 특성발굴을 위하여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다.

3.4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는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다. 문항은 크게 4가지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창업 준비 수준, 창업지원 및 네트워크, 창업 성과와 관련된 질문이며 Table 3과 같이 총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3. Lists of interviewee

No	Sector	Age	Sex
1	Wholesale/Retail	40대	Female
2	Wholesale/Retail	50대	Female
3	Restaurant	40대	Female
4	Restaurant	50대	Female
5	Restaurant	20대	Male
6	manufacturing	50대	Male
7	manufacturing	40대	Male
8	Service	30대	Female
9	Service	40대	Female

4. 분석결과

4.1 기사의 단어빈도 및 가중치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경기도(269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현대차그룹(158건), 탈북민(142건), 기프트카(124건), 단국대(118건), 통일부(113건), 저소득층(102건), 장애인(95건), 소상공인(75건), 업무협약(69건), 셰프(63건), 취업박람회(61건), 다문화가정(51건), IBK기업은행(49건), 취약계층(47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일자리(533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탈북민(245건), 장애인(104건), 경제적(90건), 부산(84건), 열매나눔재단(78건), 통일부(67건), 남북하나재단(61건), 활성화(57건), 다문화가정(54건), 대상자(49건), 장학금(47건), 기프트카 캠페인(43건), 지원금(41건), 사회취약계층(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를 적용하여 각 단어의 중요도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우선, 박근혜 정부 기간 상위에 출현한 단어 순으로 살펴보면, 현대차그룹(30.93), 다문화가정(27.97), 경기도(23.78), 장애인(22.5), 통일부(20.98), 저소득층(19.88), 업무협약(15.24), 차상위계층(14.22), IBK기업은행(1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상위에 출현한 단어는 다문화가정(25.45), 사회 취약계층(20.57), 장애인(18.99), 일자리(18.52), 탈북민(17.96), 남북하나재단(16.8), 기프트카 캠페인(13.89), 업무협약(12.95), 활성화(9.69), 지원 사회공헌(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main keyword

Park Geun Hye Government (2013.02 - 2017.03)			Moon Jae In Government (2017.05 - 2021.07)		
	Term	weight		Term	weight
1	Hyundai Motor Group	30.93	1	Multi-cultural Families	25.45
2	Multi-cultural Families	27.97	2	The Socially disadvantaged	20.57
3	Gyeonggi-do	23.78	3	Disabled people	18.99
4	Disabled people	22.5	4	Job	18.52
5	Ministry of Unification	20.98	5	North Korean Defector	17.96
6	Low-income families	19.88	6	Korea Hana Foundation	16.8
7	Business agreement	15.24	7	Gift car campaign	13.89
8	Applicants	14.48	8	Business agreement	12.95
9	Near poverty groups	14.22	9	Activation	9.69
10	Industrial Bank of Korea	13.14	10	Support social contribution	9.6
11	Parent household	12.88	11	Merry year foundation	9.43
12	Vulnerable Population	12.19	12	Customized educational	9.12
13	Gift Car Season 4 Campaign	11.93	13	Ministry of Unification	8.53
14	Dankook University	11.67	14	Early Retirement	8.43
15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10	15	Candidate	8
16	Minimum cost of living	9.33	16	Life Planning	7.73
17	North Korean Defector	8.43	17	Economical	7.55
18	Korea	8.31	18	Female head of household	7.33
19	Chef	7.5	19	Busan	6.86
20	Gift Car	7.06	20	Finding the key points	6.81

* weight: $\text{sumDFSimple} * \text{tf}(w) * \text{df}(W)^2$

* source: www.bigkinds.or.kr

4.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도된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뉴스 227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는 Fig. 3, 토픽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토픽 1”에는 취업 및 일자리 구직 관련(박람회, 일자리, 면접, 고용, 구직)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다수 나타났다. 뉴스를 살펴보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20일 의정부서 개최’, ‘광명시 희망드림 취업박람회 2000여 명 참여 성황’과 같이 취업 및 일자리 구직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토픽 2”에서는 대기업 주도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창업지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는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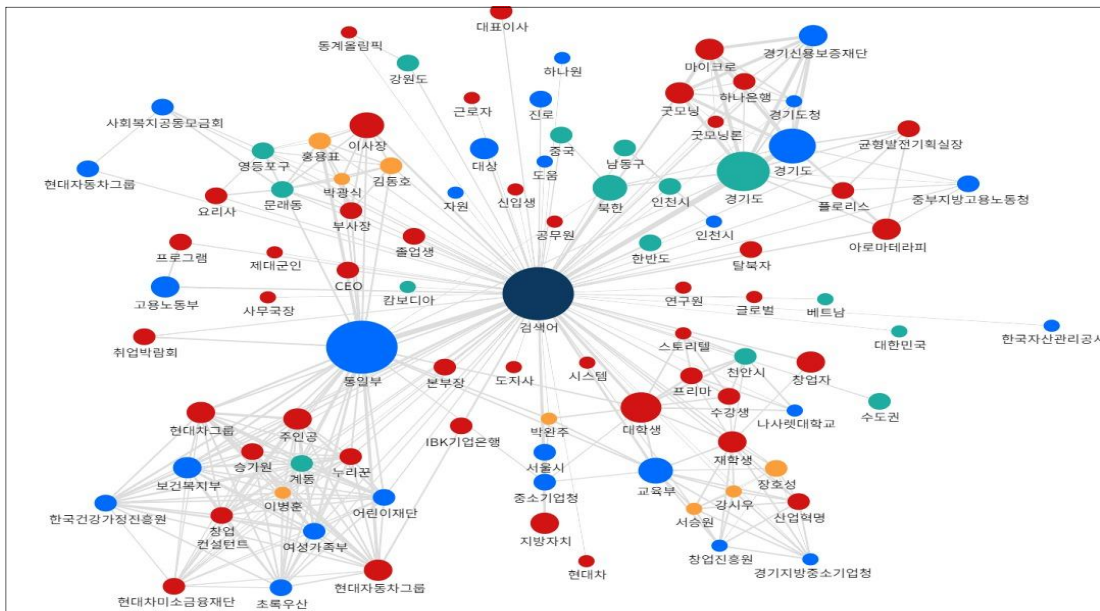


Fig. 3. Network visualization (2013.02-2017.03)

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푸드트럭 ‘기프트카’ 사업이 추진됨을 알 수 있다. ‘현대차그룹, 창업지원 기프트카 시즌 4 시작’, ‘탈북민 푸드트럭, 15일부터 서울경마공원서 영업개시’와 같은 뉴스들이 보도되며 대기업의 CSR/CSV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토픽 3”은 금융 및 자금지원과 관련된 이슈이다. 다른 토픽들과 달리 해당 토픽에는 금융, 보증, 대출, 신용, 자금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있어 자금조달 및 상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뉴스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금융소외계층 지원 위해 경기도 굿모닝론 추진’과 같이 금융소외계층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뉴스들이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창업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키워드(교육, 준비, 프로그램, 관리)가 등장하였다. ‘인토피아, 새터민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적응기 마친 북한이탈주민 창업 큰 관심’과 같이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과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토픽 5”는 지원, 확대, 운영, 서비스, 제공, 시행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뉴스 기사들로 파악된다. ‘다문화가족 아름다운 동행’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6”은 청년 대상 지원프로

그램에 대한 이슈이다. 주요 키워드는 청년, 지원, 성공, 사업, 수당, 프로그램 등과 같이 청년 취·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인 취준생에 최대 60만원 구직비용 대준다’,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모집’과 같은 보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는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5. Results of Topic Modeling (2013.02-2017.03)

Topic	Keywords
T1 (Job opportunity)	Employment, Fair, Occupation, Participation, Job, Interview, Hiring, Application, Job search, Hope
T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yundai Motor Company, Support, Group, Gift, Start-up, Campaign, Hyundai, Vehicle, Automobile, Business
T3 (Financial-Funds Support)	Gyeonggi-do, Finance, Support, Guarantee, Loan, Credit, Economy, Interest Rate, Repayment, Fund
T4 (Start-up education and management)	Start-up, Education, Automobile, Progress, Preparation, Day, Korea, Collaboration, Program, Management
T5 (Expansion of continuous operating services)	Support, Extension, Operation, Service, Family, Offer, Enforcement, Overall, Visitation, Safety
T6 (Youth Target Program)	Youth, Support, Success, Business, Seoul City, Object, Benefit, Activity, Step, Program

Table 6. Results of Topic Modeling (2017.05–2021.07)

Topic	Keywords
T1 (Financial-Funds Support)	Support. Funds. Public, Small business, Economy, Management. Credit. Finance. Loan. Start-up
T2 (Financial and economic education support)	Finance. Economy. Education. Expansion. Public, Institution, Development, Child, Small Business. Environment
T3 (Agricultural-Return to Farming Settlement Support)	Settlement. Support. Return to Farming. Farming. Resident, North Korea, Employment, Breakaway, Agriculture. Return to Hometown
T4 (Support system)	Support. System. Object, Expansion, Enforcement, Application. Economy, Maximum, Common people. Scale
Topic5 (Creating a foundation for independence)	Foundation. Job. Agreement. North Korean defectors, Task, Gyeonggi-do, Employment, 7–Eleven, Contract. Settlement
T6 (Female and family support)	Support, Employment. Women. Family. Service. Culture, Center, Education. Business, Job

4.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주요 결과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경험이 있는 대표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주요 질문은 Table 7과 같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항목별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면에서는 이른바 기업가정신, 심리적 성취욕구,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집약할 수 있는 창업자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창업을 하여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 준비수준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창업 초기자본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창업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업지원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분야는 지원제도의 경험이 있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 성과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이전에는 수익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Questionaries

No	Classify	Question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	Founder's background and personality
		Achievement and risk-taking
2	Ready to start a business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in North Korea
		Share of Equity Capital at Startup
3	Start-up support and network	Degree of start-up support
		Disability and support factors when starting a business
		money related network
4	company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Satisfaction, profit improvement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기사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뉴스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으로 구분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두 정권의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뉴스데이터를 정권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토픽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업 기사의 주요 토

Table 8. Results of interview

Sec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	Start-up preparation level	Start-up support and network	Start-up performance
Wholesale and retail (2 people)	Entrepreneurial spirit, business experience related to wholesale and retail is helpful	Get a loan or start with 100% equity	Leverage support and networks privately and publicly	Satisfied with current earnings
Restaurant business (3 people)	Good momentum despite high risk	Experience in North Korea Relevant to starting a business	Obtain business support information through acquaintances	Satisfied with pre-Corona revenue, but dissatisfied now
Manufacturing (2 people)	strong desire for achievement	Efforts to become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Experience of receiving start-up support	Achieved financial performance
Service industry (2 people)	strong desire for achievement	Carry out various efforts to secure capital	Little idea of start-up support	earned enough to cover the labor cost, but not now

픽은 '일자리 기회(토픽 1)', '대기업 사회공헌지원(토픽 2)', '금융·자금지원(토픽 3)', '창업교육·관리(토픽 4)', '지속적 운영서비스 확대(토픽 5)', '청년대상프로그램(토픽6)'으로 도출되었으며, 문재인 정권에서의 주요 토픽은 '금융·자금지원(토픽 1)', '금융·경제교육지원(토픽 2)', '영농·귀농정착지원(토픽 3)', '지원제도(토픽 4)', '자립기반조성(토픽 5)', '여성·가족지원(토픽 6)'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주요한 토픽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실제 창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창업 성공을 위한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창업 분야의 준비가 철저히 수행되고,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을 여성 및 청년을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청년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청년창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실업 증가 속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15]. 실제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년의 비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창업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그룹과 (사)피피엘이 진행하고 있는 'OK셰프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분석기간 동안 공통으로 도출된 토픽은 금융·자금지원(토픽3/토픽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청의 보고서(2015)의 탈북경제인들의 사업운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 1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창업 초기자금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목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창업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자금조달 및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창업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는 것이다[3]. 대부분

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프로그램은 창업기초 및 요식업종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만,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수혜자 중에는 요식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뽑고 있다[7].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취업과 함께 창업은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제활동의 만족도가 우월하며 특히 창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16].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및 청년 비중이 높은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기초로 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비정형 데이터로 나타나는 창업 관련 이슈를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자금조달 및 지원제도 정비, 지속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 주관부서나 민간기관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7].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위한 자부금 확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나 관심 창업업종에서의 근무를 통해 노하우 습득과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소 거시적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과 한정된 인터뷰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통해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를 출현비율에 따라 군집화하여 주요 담론을 파악했으나, 토픽별 주요 키워드 간에 연결된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분석 등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토픽과 관련된 긍정·부정 담론들을 더욱 정교하게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A. G. Dworkin & R. J. Dworkin. (Eds.).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2] Korea Hana Foundation. (2020). *2020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 Korea Hana Foundation
- [3] J. S. Lee. (2020). A Study on Support Policy of Entrepreneurship for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Strategy*, 20(2), 117-155.
- [4] J. H. Lee., B. H. Cho., J. H. Lee. & S. R. Lee. (2017). A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Process and the Assignment of Settlement Support.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9(3), 175-190.
- [5] Y. J. Kim. (2019). *A Study o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 Entrepreneurs' Business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6] J. H. Lee., B. H. Cho., J. H. Lee. & S. R. Lee. (2015). Study on a Plan for the Activ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s Start-up of Business Based on the D.I.K.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4), 261-278.
- [7] Y. J. Kim., J. H. Mun., S. B. Chun., D. S. Choi. & J. B. Lee. (2018). A Case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OK (One Korea) Chef'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266-292.
- [8] K. Yun. (2013). *Economic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ucceeded in Inaugurating a Business*.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 [9] I. A. Hyun., K. Yun. & D. S. Kim. (2014). *Study of Success Cases as Seen by a North Korean Defector*, Seoul : Korea Hana Foundation
- [10] S. J. Kim. & M. K. Jeon. (2017). The study on Entrepreneurship Spirit and Start-up Orientation of the Youth and Students in University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49(1), 105-127.
- [11] B. S. Yun., Y. J. Kim. & J. B. Lee. (2019).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Network Trust and Absorptive Capac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4), 50-75.
- [12] S. H. Park. (2020). Appropriation and Resistance: The Media Approach to Delivery Platform Labor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AI Labor. *Media and Society*, 28(4), 5-53.
- [13] D. M. Blei., A. Y. Ng. & M.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14] S. K. Park., H. J. Lee. & B. G. Lee. (2021). Exploring Social Issues of On-demand Delivery Platform Particip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79-85.
- [15] J. H. Jin. & B. J. Park. (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 [16] J. R. Park. & D. W. Kang. (2012). A Study on the North Koreans'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and Their "Distorted Images of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Studies*, 21(1), 239-270.
- [17] G. J. Hwang. & C. L. Qing. (2021).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Consulting on Start-up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Start-up Compet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6), 23-28.

문 준 환(Jun-Hwan Mun)

[상학원]



- 2019년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 박사)
- 2019년 ~ 2020년 :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1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창업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데이터마케팅, 고객센터, 스마트폰 및 SNS 이용 관련 연구
- E-Mail : mjhpioneer@skku.edu